

추 눈금을 달리하면서 3회 연속 정미한 시험에서 최종 현백률이 낮은 품종일수록 첫 번째 정미 시의 감도가 현저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도정률이 낮은 품종일수록 첫 번째 정미압력은 낮게 하고, 뒤로 가면서 도감률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도정수율과 백도측면에서 유리하였다.

품종별로는 동진벼1호, 삼광벼 등은 정미 압력변화에 비교적 둔감한 반면 고품벼나 오대벼 등의 경우는 다소 민감한 편이었으며, 주안벼는 정미 초기 도감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보통의 정미압력보다 더 낮은 압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의 백도는 투명도가 높은 품종일수록 낮았다. 4연좌 정미기의 경우 첫 번째 도감률은 5% 이하의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두 번째부터 매회 2% 수준의 도감률로 정미되도록 압력을 정하되, 맨 마지막 정미기에서는 전단계보다 약간 높은 압력을 부여하는 것이 싸라기 발생을 줄이면서 정미 후반까지 균일한 현백을 가능케 하여 백도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㉞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녹색기술 9월호〉

농약중독 시 응급처치

김 호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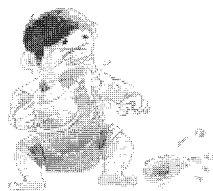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농약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즉 농약은 병해충 방제와 농촌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만, 농약을 사용할 때 방심하거나 주의사항을 소홀히 하는 경우 농약중독 사고 등으로 농업인에게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 같은 농약중독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농업인은 농약중독 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항상 숙지하였다가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소개하는 농약에 노출된 형태에 따른 농약중독의 응급처치 방안을 잘 읽어보시고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잊지 않도록 한다.

① 입에 들어갔을 때 물로 헹궈낸다

농약이 입에 묻거나 입안으로 들어가면 즉시 물로 양치를 한다. 농약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물을 담은 주전자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물을 마시고 토해낸다

농약을 마셨을 때는 물이나 식염수를 2~3잔 마시게 한 다음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게 한다. 위에서 내용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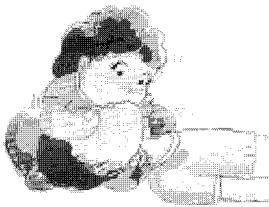
흡착제를 먹는다.

토하게 한 후 장으로 들어간 농약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도록 흡착제(활성탄 또는 아드솔빈, 목초액 등)를 30g 정도를 복용한다.



② 들이마셨을 때

옷을 헹궈내고 심호흡을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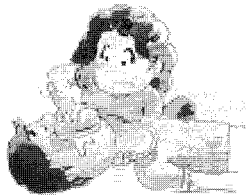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옷을 헹궈내고 풀어 놓은 다음 심호흡을 시킨다. 중독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온에도 주의한다.

호흡이 약하고 침이 많이 고였을 때는 중독자를 엎어서 뉘여 놓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침이 밖으로 나오기 쉽게 해준다.

숨을 안 쉴 때는 인공호흡을 한다.

우선 반듯하게 누인 다음 입안에 고여 있는 침을 닦아내고, 목 뒤로 손을 넣어서 턱을 들어 올린 후 입과 기관지 그리고 폐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이때 머리를 가능한 뒤로 빼서 턱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숨이 새어나가지 않게 코를 잡고 입으로 숨을 불어서 넣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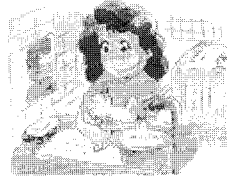


③ 피부에 묻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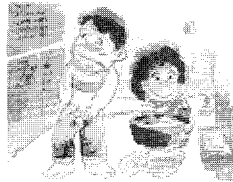
비누로 씻어낸다.

피부를 비누로 잘 씻어내어 농약을 제거한

다. 대부분의 농약이 알칼리와 만나면 쉽게 분해되므로 일반 세면비누 등을 사용하여 15분 정도 꼼꼼히 닦아낸다.



옷에 묻었을 때는 즉시 벗는다.



방수가 안 되는 옷에 농약이 묻었을 때는 즉시 속옷까지 전부 벗어서 피부를 비누로 씻은 다음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농약이 묻은 바지를 입고 장시간 작업을 강행하였을 경우 농약이 속옷까지 젖어 심한 피부장애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

④ 눈에 들어갔을 때

일단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깨끗한 물로 눈을 헹궈낸다. 아니면 주전자나 수도물을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씻어 내리고, 적어도 15분간 계속해서 씻어낸다.



세안기를 준비한다.

가능하면 세안기를 항시 준비해 놓고 즉시 물로 닦아낸다. 세제가 들었던 폴리에틸렌 용기를 깨끗이 닦아서 말린 다음 물을 넣어 세안기 대신에 사용해도 좋다.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 것.



이 때 눈을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아야 한다. 거즈를 가볍게 눈에 대고 빨리 전문의를 찾아간다. ㉞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녹색기술 8월호>